

“더 못 참겠다! 사측은 9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중앙상집 간부 광화문에서 성실교섭 촉구 시위 전개



2018년 단체교섭이 수 차례 개최되었지만 9대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완강한 수용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노동조합은 무의미한 실무교섭을 전면중단하고 지난주 제1차 조합간부 선도투쟁을 전개했으며 이번 주에도 총력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5월 21일(월) 7시 30부터 중앙상집 간부는 광화문 East 사옥에서 침묵시위를 전개했다. 이는 사측의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고 즉각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한편, 김해관 위원장은 조합간부 선도투쟁 중 17일(목) 각지방본부의 철야농성장을 찾았다. 이날 충남, 대구, 부산지방본부를 차례로 방문해서 농성중인 조합간부들을 격려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우리의 뜻을 관철 시키기 위한 험난한 여정에 많은 조합원이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여 기대에 화답하자” 고 말했다.

또한 12개 지방본부는 지난주 1차 선도투쟁을 종료한 후 각 12개 지방본부별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각 지방본부는 결의대회에서 18투쟁 승리'를 위해 이번 주에 전개될 제2차 전국조합간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2차 조합간부 총력투쟁으로 정면 돌파한다!

2018년 단체교섭은 조합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수용거부로 파행직전이다. 13대 집행부는 이전과는 달리 협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병행해서 꼭 쟁취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노동조합의 주장은 경영이 정상화된 이상 그 동안 양보했던 부분을 원상회복하자는 것이며 사내유보금, 부채비율 감소, 전년 영업이익 등을 감안해서 사측이 꼭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측 요구안에 대해 '임금인상의 경우 정부의 통신정책과 5G 주파수 등 대외적 환경이 너무 어렵고, 임금피크제의 경우 조합요구 수용 시 매년 수백억 원의 비용부담이 들며, 대학학자금 부활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뻔뻔하고 완강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제2차 조합간부 총력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금일 오후에 개최되는 제4차 본교섭 결과를 주목하면서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요구 안건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

| 안건 | 노측 주장 | 비고(사측) |
|--|--|---|
| 임금 4.7% 인상 | 실질임금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 0.5% 인상 |
| 장기 성과급제도 도입 (전년도 영업이익 10% 배분) | 경영실적에 대한 주주배당과 경영진에게 성과급을 배분하듯 조합원에게도 공정한 배분 요구 | 일시금 100만원 지급 |
| 대학학자금 부활 (3자녀 16학기 75% 지원) | 임금피크제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부담 때문에 조합원들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 | 현 대부제도 유지 |
| 임금피크제 재협상 (58세부터 5%씩 감액) | 현재 적용 나이(56세부터 10%씩 감액)와 감액률이 과도함. 재조정 요구 | 현 수준 유지 |
| C/S/A직 일반직 전환 | 직군간 차별 철폐와 고용불안 해소 | A직만 검토 |
| 의료비 지원 확대 | 비급여성(MRI, CT, 초음파) 100% 지원 | 수용 |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1,000억원 출연 요구 - 대학학자금 지원, 카페테리아 복지, 복지포인트 등 조합에서 요구한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출연금액 | 376억원 |
| 카페테리아복지 도입 | 세대별 맞춤형 복지제도 완성 | 노사공동연구 |
| 인사보수제도개선 | | |
| ① 고과차등폭 축소 ② 승진적체 해소 ③ 'U'고과 개선 ④ 밴드상한 폐지 ⑤ 무급휴직제도 도입 ⑥ 직권면직, 대기발령 폐지 | ① 차등 해소 ② 근속 15년이상 대리, 과장 승진확대 ③ 인사고과로 인한 임금삭감 없도록 개선 ④ 상한자 실질임금 인상 ⑤ 배우자 장기 파견시 적용 취지 ⑥ 인사규정 제24조, 제37조 폐지 | 수용불가 긍정검토 수용 수용불가 조건부수용 수용 |